우리농업, 농촌 이렇게 가야합니다

Ⅳ 농업진흥지역이란

(續)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의 지속적 추진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량 농지를 묶어서 집단화하여 그곳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꾀함으로써 농업도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농림수산부제공〉

1、농민의 다양한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정과정을 공개합니다.

그동안 현장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평야지대는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가를 보전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희망하고 있고, 도시근교는 전용규제 완화에 따른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진흥지역에의 편입을 원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산간오지에서는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오히려 지정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진흥지역에 편입하여 기반투자 등 정책지원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등 지역에 따라 여론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농민의 다양한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정과정을 공개하고 지정안이 작성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할 것이며, 주민대표로 구성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군의회에도 보고토록 하여 깊이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농업진흥지역이 주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시달한 지정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가 관할 지역내의 농지를 현지조사하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을 골라 지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정되도록 하기위해 90년도에 전국 16개 군을 표본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작년에는 이 지정기준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의 전문기술진을 투입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지정대상 농지에 대한 실측조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시장·군수가 지정안을 작성하여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지정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승인요청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기위해 지방의회에의 보고절차도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된 시·군의 지정안은 시·도지사가 다시 정밀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도에 설치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지정승인을 요청하게 되며,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정승인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시·군에서는 일반인이 열람하게 됩니다.

3、시·도지사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의 과정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된 시·군 지정안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다시 정밀검토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즉 ▲개발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지역 ▲주택·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농업투자가 불가능한 지역, ▲폐수유입이 극심하여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한해·수해 상습지 등 농업기반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인 경우와 잡종지로서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 등은 시·도지사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이라도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농업기반투자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편입을 허용하여 과수, 화훼, 축산, 특작 등 시설영농등의 단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농업진흥지역을 찬성하지 않는 지역은 현행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금년내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진흥지역에 대한 집중투자와 지원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민대다수가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반대하여 진흥지역 지정안 작성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의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한 후 내년 1년동안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제도가 현재의 절대 농지·상대농지제도를 개선 보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지정되지 못하면 농민을 발전시킨다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이제 도가 소기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어려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정키로 한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일본은 1969년에 대만은 1974년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농지를 권역별로 관리 보전하고 있으며 프랑스·서독·영국·네덜란드 등도 20~30년 전부터 권역별로 농지를 보전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69년에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현재와 같은 생산기반이 잘 정비된 농업터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만도 74년에 구역계획법 및 비도시토지이용규제 규정에 따라 농업구역을 지정하여 90년 현재 전체 농지의 89%가 특정농업구역과 일반농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농지전용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농업 및 농업환경보호 차원에서 농촌토지를 권역별로 관리 보전하고 있습니다. 즉 프랑스는 농촌정비법(1970년)에 의거 농업지역을 구분 관리하고 있고, 서독은 국토정비법(1965년)에서 농림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토지계획법(1962년)에서 농촌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영국도 그린벨트제도 및 농촌계획법(1947년)의 시행으로 가장 먼저 강력한 농지보전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협조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1>

○… 서울특별시에서 총무 67503-12664호로(93…○년 7월 22일 접수) 사보발간 단체에 대하여 쓰레기…○줄이기 범시민운동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를 요청해…○왔으므로(사보게재후 자료 송부) 다음과 같이 홍보자…○효를 연재로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고 깨끗한 우리 환…○경만들기에 모두 참여토록 합시다. 〈편집자 주〉…○

1、쓰레기 분리수거란 무엇입니까?

인간생활의 필수 산물인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연탄재등 3가지 종류로 구분, 배출, 수거, 운반,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거나 자원화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2、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한 경위는?

90년 7월 시내 23개동에서 시범실시한 후 같은해 8월 송파구 오륜동 선수촌 아파트에서 주민자율로 투입구를 폐쇄, 쓰레기수거 플라스틱통을 설치하므로써 악취와 벌레등이 없어지고 쓰레기 수거주기가 단축되는등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후 전 아파트에 쓰레기 투입구가 폐쇄되는 대신 쓰레기 투입용 콘테이너 박스와 재활용품 보관용기가 각 아파트단지내에 설치되었으며 일반주택지역은 92년 7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각종 단체와 언론기간 등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승화되어 쓰레기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3、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은?

분리수거의 목적은 첫째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데에 있으며 둘째 발생된 쓰레기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최대한 골라내는 데에 있습니다.

발생되는 일반쓰레기중 0.9%는 소각하여 지역난방으로 활용하고 99.1%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일반쓰레기는 김포군 검단면의 수도권매립지로 운반, 매립처리 하는 등 쓰레기 처리에 연간 3천2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의 정착으로 자원과 예산을 절약하고 환경도 보존하는데에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4、외국은 어떻게 분리수거하고 있습니까?

우선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서울은 1.48㎏인데 비해 동경은 1.1㎏, 뉴욕은 1.3㎏으로 외국은 쓰레기의 발생에서부터 철저한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일본의 경우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1회 날짜를 지정하여 품목별로 수거하고 있으며 특히 박스 등 종이류와 유리병은 월 1회 정도 부녀회등 주민자율수집단체가 순회수집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여러 장소에 다양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분류를 세분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품이 벼룩시장등을 통하여 재사용되는 것은 본받을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5、분리수거를 위해 시민이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문제가 곧 나의 일이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나부터 분리수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할 때 내주위 사람들도 분리배출을 실천하게 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이웃과 내주위사람이 동참하도록 권장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빠른 시일내에 쓰레기 양도 줄고 폐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꼭 알고 실천에 옮겨야 할 일은 쓰레기 또는 재활용품을 지정일시와 장소에 종류별로 내어 놓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6、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청이 하는 일은?

우선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쓰레기 수거체계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내어놓은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토록 하므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자원회수시설등 각종 첨단 청소관련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 운반장비의 기계화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므로써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의 정착, 쓰레기처리 비용을 절약하고 인력위주의 수거체제에서 차량위주의 기계화체제로 전환하여 환경미화원의 작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후생복지도 증진시켜 깨끗한 수도 서울을 가꾸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7、쓰레기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92년 2월 17일에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있는 시민생활국 청소 1, 2과를 대폭 개편하여 청소사업본부를 발족시켜 현재 2국 4부 18과의 조직과 인원 1백74명으로 서울시 청소업무를 종합 기획, 조정하고 있으며 각 구청에도 청소과를 두어 자치구내의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은?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하루 16만2백톤으로 이는 8톤트럭 2천여대분에 이르고 처리비용도 년간 약 3천억원에 달하는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매립해 오던 난지도매립지는 이미 포화되어 폐쇄되었고 이로 인하여 오수발지, 가스분출등 예상되는 여러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정화 사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형편입니다.

9、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이유는?

과거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는 가축에게, 나무등은 땔감으로, 채소류는 말려서 겨울에 시레기국등으로, 가축의 배설물은 논밭의 거름으로 활용되어 모든 쓰레기가 유용하게 재활용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소득의 증가와 근검절약 정신의 해이로 각종 생활쓰레기가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음에 따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10、쓰레기의 성상을 3종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쓰레기는 최종처분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연탄재로 3분류하여야 하며 이렇게 분류된 3종의 쓰레기는 각각 재생, 소각 또는 매립, 복토재 활용 등으로 최종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